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미 경제 둔화 예상 불구, 오히려 상승중
- Bloomberg: 미 3분기 GDP 보니 여전히 '경제 강국'
- WSJ: 미 부채 급증하는데 반해 유럽은 부채 제한 움직임

[금융]

- Bloomberg: 10년물 국채 수익률 5% 돌파후에 하락
- Bloomberg: 금은 변동성 시기에 '피난처'

[부동산]

- WSJ: 지금이 임대 대신 집사기에 가장 나쁜 시기

[에너지]

- CNN Business: 유가, 중동 분쟁 우려에 변동
- CNBC: 태양광주가, 수요 감소로 3년 만에 최저치
- CNBC: 풍력 터빈 문제로 풍력 에너지 주가 폭락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식품기업들, 다시 할인 판매 시작하다
- Bloomberg: 마이크로소프트, 호주에 32억 불 투자계획
- Bloomberg: 아마존, 사무실 출근보다 직원 관리에 더 신경써야

[보고서]

- 하버드 비즈니스 보고서: AI를 통한 고객 경험 관리 방법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The Economy Was Supposed to Slow by Now. Instead It's Revving Up.

미 경제 둔화 예상 불구, 오히려 상승중

- 올해초 이코노미스트들과 연준관리들은 예상했다. 금리 상승으로 소비외 투자가 위축되어 이때 쯤이면 미국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것. 그러나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 최근 경제 데이터를 보면 대출 금리 인상, 학자금 상환 재계,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 경제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 골드만삭스는 미 3분기 GDP를 당초 3.7%에서 4%로 상향조정했고, 경제 컨설팅사High Frequency Economics는 동 분기에 4.4%에서 4.6%로 상향 조정하고 올해 4분기도 전망치를 1%에서 1.2%로 올렸다.
- 1분기 GDP는 2.2%, 2분기는 2.1%였으며 3분기 수치는 이번주 목요일 연방상무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WSJ 기사

Bloomberg: Fresh Growth Numbers Are Set to Show US Remains Economic Powerhouse

미 3분기 GDP 보니 여전히 '경제 강국'

- 미국 경제가 강한 소비 지출에 힘입어 올해 3분기에 지난 2년 기난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전된다. 이와 관련 연준 관리들에 추가 통화긴축 정책이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 도전을 주고 있다.
- 블룸버그의 이코노미스트들의 설문 조사 결과 중간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7월, 8월, 9월 미 GDP가 연평균 4.3% 속도로 증가했다.
- 이같은 성장은 유럽에 정체되어 있고, 아시아 국가들이 불안한 중국과 경쟁하는 가운데 미국이 경제 강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Bloomberg 기사

WSJ: As U.S. Debt Surges, Europe Brings Its Own Under Control

미 부채 급증하는데 반해 유럽은 부채 제한 움직임

-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에 미국과 유럽연합은 부채를 키웠다. 그런데 현재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 미국 부채 증가, 유럽은 크게 적자폭을 줄이고 있다.
- 10년전만 해도 금융위기때 유럽연합 일부 국가들은 부채로 채무불이행 직전 사태까지 갔다. 그러나 그에 따른 교훈과 유럽연합의 관련 룰 때문에 유럽 각국들은 부채 제한 조치를 하게 되었고, 미국은 그렇지 못했다.
- 특히 최근 한달간 전세계적인 국채 금리 상승은 각국 중앙은행의 인플레이 감소 노력이 있었지만 특히 미국의 재정 적자 때문이라는 것.
- 연방 정부의 부채는 올해 9월말에 끝나는 회계연도에 전년도의 1조 4천억 (GDP의 5.4%)에서 1조 7천억불(GDP의 6.3% 증가)로 늘었다고 지난 금요일 발표했다. 연방행정이 중단한 학자금 대출 취소 프로그램에 따른 회계변경이 없었다면 2조달러에 가까웠을 것이라는 것이다.

WSJ 기사

[금융]

Bloomberg: Treasury 10-Year Yield Retreats After Hitting 5%: Markets Wrap

10년물 국채 수익률 5% 돌파후에 하락

- 월요일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식 거래에 여파를 미쳤고, 현재 투자자들은 알파벳, 메타, 아마존 등 대형주들의 실적을 기다리고 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국에 대한 광범위한 지상 공격을 연기하면서 석유와 금 가격이 후퇴했다.

- S&P 500지수는 4,200선을 잠시 상회한 후에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다. 월스트리트의 공포의 지표로 알려진 변동성지수(VIX)는 7개월만의 최고치에서 하락했다.
- 특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래 처음으로 5%를 돌파한 후에 하락했다.
- 10월은 예전처럼 연간 가장 변동성이 큰 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Gold Reasserts Its Haven Status in Troubling Times **금은 변동성 시기에 ‘피난처’**

- 금값이 지난 2주간 상승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국경 갈등의 지정학적 위험 상황이 금을 ‘피난처’로 부추키고 있다. 위기때 가장 필요한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것.
-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금값은 7% 이상 상승하며 5월 정점 이후의 하락이 반등했다.
- 얼마나 상승할까? 금은 연준의 긴축 통화정책으로 여전히 역풍을 맞고 있는데 이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금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것.
-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정책이 턴어라운드 조짐을 보일때만 금값 추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 경제 위험의 헤지수단으로 귀금속에 대한 새로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Bloomberg 기사

[부동산]

WSJ: There's Never Been a Worse Time to Buy Instead of Rent **지금 이 임대 대신 집사기에 가장 나쁜 시기**

- 요지: 모기지 상승 때문에 집을 구입하는 것이 임대하는 것 보다 52% 더 부담이 되고 있다.
- 지난 1996년 이래로 집 구입 비용과 임대 비용이 격차가 지난 1996년 이래 가장 극심한 수준이다. CBRE에 따르면 월 평균 신규 모기지 지불액이 평균 월 아파트 임대료 보다 52% 더 높다.
- 집값이 높다보니 모기지 비용을 감당하기는 커녕 다운페이먼트 10%의 계약금을 모우기가 더 힘들다는 것이다.

WSJ 기사

[에너지]**CNN Business: Oil prices fluctuate as concerns mount over Middle East tensions****유가, 중동 분쟁 우려에 변동**

- 오늘 월요일 유가가 배럴당 91달러 이상 상승했지만, 중동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으로 인해 다시 떨어졌다.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완화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 90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하락한 것이다.
- ANZ 연구소의 분석가들은 지역 분쟁이 심화한다면, 단기간에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만약 이란이 분쟁에 개입한다면, 하루 2천만 배럴의 원유 생산량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며, 물류 차질로 인해 공급망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Business 기사

CNBC: Solar stocks tumble to 3-year low as Solaredge drops nearly 30% on demand warning**태양광주가, 수요 감소로 3년 만에 최저치**

- 태양광 제품 제조업체 Solaredge가 유럽에서 태양광 제품 수요가 상당히 약해졌다고 경고한 뒤 지난주 금요일 태양광 관련 주가들이 하락했다.
- The Invesco Solar ETF (TAN)는 6.57%, Sunrun and Sunnova는 각각 5.7% 와 8.9% 하락했으며, Enphase Energy는 거의 15% 떨어졌다.
- Solaredge의 주가는 3분기 매출, 총이익 그리고 영업이익이 낮고, 4분기에 는 아주 저조할 할 것이라고 발표한 뒤 28.2% 급락했다.
- 이 기업의 CEO인 Zvi Lando 는 태양광 제품의 높은 재고량과 낮은 수요로 인해 유럽 유통업체들의 기존 주문 건에 대한 예상치 못한 취소가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CNBC 기사

CNBC: Turbine troubles have sent wind energy stocks tumbling — and a slew of issues remain**풍력 터빈 문제로 풍력 에너지 주가 폭락**

- 30개국의 1만 4천개의 풍력 에너지 기업을 관찰하는 ONYX Insight는 터빈 공급망 위기로 인해 관련 기업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 Siemens Energy의 4분기 실적을 앞두고, Kepler Cheuvreux의 분석가들은 지난주 목요일 보고서에서 내년 회계연도에 이 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Deutsche Bank는 지난주 공급업체 지연, 세금 공제 축소 그리고 금리 상승을 이유로 덴마크 에너지 기업인 Ørsted의 12개월 주가 전망치를 36% 하향 조정했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Food Is on Sale Again. You Might Still Have Sticker Shock. 식품기업들, 다시 할인 판매 시작하다

- 리서치 회사 NielsenIQ에 따르면, 식료품점에서 할인가로 판매되는 식품의 비율이 2019년 이후로 최대 수준에 도달했지만, 쇼핑객들은 2019년보다 3분의 1 이상을 더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 치솟고 있는 높은 물가 때문에, 소비자들은 지출에 신중해지면서 냉동식품에서부터 반려동물 식품까지 모든 품목에서 할인을 원하고 있다. NielsenIQ 데이터는 지난 52주간 전반적인 미 단위별 식품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 식품기업들은 이에 할인 행사로 대응하고 있다. NielsenIQ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52주 동안 단위별 식품 판매의 약 33%가 할인 대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WSJ 기사

Bloomberg: Microsoft to Invest \$3.2 Billion to Boost AI and Tech in Australia

마이크로소프트, 호주에 32억 불 투자계획

- 마이크로소프트가 호주에 클라우드 컴퓨팅과 AI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50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는 미국 기업이 호주에 40년 이래로 가장 규모가 큰 투자이다.
- 이런 사실은 이번주 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의 미국 방문 일정 속에 발표됐으며, 이번 투자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는 Canberra, Sydney 그리고 Melbourne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20개 지점에서 29개 지점으로 늘릴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New South Wales 주와 협력해 호주에 데이터 센터 아카데미를 설립하며, 정보기관인 ASD(Australian Signals Directorate)와 사이버 보안을 위해 공조한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Amazon Managers Should Manage More, Take Attendance Less

아마존, 사무실 출근보다 직원 관리에 더 신경써야

- Business Insider에 따르면, 아마존이 직원들을 사무실로 복귀시키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팀장들에게 적어도 3일 이상 출근하지 않는 직원들을 면담하거나 해고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사무실 복귀에 대한 이런 아마존의 접근 방식은 출근을 잘 하지 않지만, 재택근무를 성실히 하고 있거나 대체하기 어려운 직원들에 대한 한 계성을 가지고 있다.
- 최근의 Gartner survey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미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율이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팀장은 사무실 복귀 의무화로 인해 팀 간의 갈등이 커졌다고 답했다.
- 갈등의 원인은 여전히 원격 근무자의 생산성에 대한 견해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 원격 근무자 86%는 자신의 생산성이 사무실에 있을 때와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답했지만, 많은 HR담당자들과 경영진들은 오직 52%만이 그렇다고 보는 것이다.
- 기업들은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에 대한 집착을 그만두고, 직원들의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정기적인 일대일 면담, 업데이트 사항을 공유하는 주간 팀 회의, 생산량을 추적하는 시스템 등 그 어느 것도 사무실에서 이뤄질 필요가 없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하버드 비즈니스 보고서: Using AI to Build Stronger Connections with Customers

AI를 통한 고객 경험 관리 방법

- 고객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보안 문제로 연결되거나, 앞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걱정한다.
- 이것은 특히 은행이나 헬스케어 같은 분야에서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기업들이 고객 경험(customer experience)을 AI에 의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이는 장기적으로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어떻게 AI를 통해 고객 경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을까?

1) 고객 맞춤화하기

- 고객 만족을 중심으로 AI를 활용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객과 교류를 통해 기업이 고객을 학습하고, 고객에게 더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AI를 고객 맞춤형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AI 지원 서비스 (AI-enabled assistant)이다. 캐나다의 Royal Bank는 Nomi라고 불리는 AI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인터넷 बैं킹관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각 고객에게 맞는 유용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하거나, 각 고객의 소비성향이나 현금흐름에 기반해 적합한 예산 및 저축 방법을 고객에게 직접 추천해 준다. 또한 AI 지원 서비스는 직원들이 고객들과 쉽게 접촉하도록 돕는다.
- 모간스탠리는 자사의 전문가들이 각 고객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AI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기술은 단순 검색뿐만 아니라 정보를 재구성해서 전문가들이 고객들에게 적합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내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직원 서비스 역량 강화하기

-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하면서, 고객 경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생성형 인공지능기술에 익숙해져야 한다. 가령, AI를 이용해서 나온 데이터를 직원들이 검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객 경험을 향상하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 AI가 직원들에게 고객의 최근 정보를 기반으로 계속 고객과 대화할 수 있는 소재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문제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제공해 직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AI가 업무 과정에 직접 투입되는 방법이 있다. 특정 문제를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직원에게 관련 문의를 연결해주고 적절한 답변을 추천해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 가까운 미래에는 AI가 직원들에게 고객의 호감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이나 글을 반영해 고객을 위한 상품을 제시해 주거나, 고객의 중요한 기념일을 알려줄 수도 있을 것이다. 생성형 AI 기술의 가치는 기업이 고객들에게 훌륭한 고객 경험을 제공할 때 빛을 발휘할 것이다. (번역: 전상엽)

HBR 원문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미국 3분기 GDP 4.3% 증가 전망...여전히 세계 성장엔진"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조사 "소비 지출 증가에 힘입어" 4분기는 다소 둔화 전망...ECB, 26일 금리 동결할 듯

미국은 올해 3분기에 연율 4.3% 증가한 국내총생산(GDP)을 기록, 여전히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상무부는 오는 26일 3분기 GDP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3분기 성장 전망 중간치가 견고한 소비 지출에 힘입어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